

北-美 꼬일수록... 존재감 더하는 '중재의 달인'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치 급변해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기회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 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난 가운데, 국제사회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물론, 작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열린 회담까지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된 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커졌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그동안 빛을 발휘했다.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전정권과 달리, 문 대통령은 특유의 중재자 외교로 북한과 함께 '9·19 군사합의(남북 접경지역 군사적 충돌 방지)'를 이뤄냈다. 이 합의는 작년 9월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일환이다. 이 합의에는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및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이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4·27남북정상회담(1차)-5·26남북정상회담(2차)-9·18~20남북정상회담(3차) 등 3차례 정상회담을 김 위원장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래서인지 미국 외신 뉴욕타임스는 작년 4월26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스스로 ‘중재자(mediator)’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핵 협상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한 김 위원장 사이를 오가며 양쪽 간극

을 메워주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은 국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도 나온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2차 북미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창의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다. 북미간 합의를 촉진하고, 북미간-남북간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이 요긴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제3차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당장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말 하노이 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되자 문 대통령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다. 향후 북미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날 밤 6시 50분부터 25분간 통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말한 후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때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며 “우리도(문재인 정부도) 한미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미 정상은 하노이회담 때 비핵화 조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간 인식 차가 컸던 것이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소로 돌아와 정상회담 합의문 불발 관련 “영변 핵시설 해체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석대성·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한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 폐지 '동맹훈련' 비핵화 뒷받침 될까

오늘부터 7일간 연습 실시

대규모로 실시되던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각각 폐지된다. 전문가들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군사준비태세의 수준은 유지되면서 전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KR: 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사진은 3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통상 3개월째 실시돼 왔던 연합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 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4일부터 주말을 빼고 7일간 실시된다. 실기동 군사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사실상 폐지돼 소규모 부대별 훈련으로 개편된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동맹’ 연습은 기존 봄에 진행되었던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조정해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작전을 전략, 작전, 전술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으로 'Dong Maeng'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연습명은 한미 군사 당국이 키리졸브 연습의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연합군사연습이 향후 전술적인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사실상 폐지는 한미 양국 간의 논의에 따라 추진됐다. 국방부는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헌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밤 10시부터 45분 간 통화를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체계의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양국 군 수뇌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투준비태세 수준과 한미동맹 유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시기에 집중된 대규모 연합훈련을 대신해 소규모 단위의 지속적인 훈련으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미국통이자 한미연합사단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연습의 시

기·범위와 수준·홍보 등을 상황에 맞게 실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훈련은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과거에는 일년에 한달 정도 미군과 훈련을 했지만, 현재는 연중무휴 미군과 훈련을 실시하는 부대(한미연합사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한미 양측이 논의를 거쳐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서 “북한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양보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번 결정이 (북한에 대한 양보) 반증인 만큼, 그 가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특정시기에 집중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연간훈련에 반영돼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때문에 단위부대별 훈련 능력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소규모의 단위 부대별 훈련은 전술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전략적 측면, 전체적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 지휘 측면에서는 약간의 부족한 점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권환수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